

## [러시아, 2014년 8월] [수산물 및 수산식품 동향]

###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 러시아, 1년간 일부 농수산물과 식품 수입 전면금지

8월 7일 러시아연방 정부는 '러시아연방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러시아 대통령령 구현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결의'를 채택함. 2014년 8월 7일자 러시아연방 정부결의에 따라 일부 식품과 농산물의 러시아 반입이 금지됨

이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제재는 제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와 같이 러시아 시민과 러시아 회사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국가들 원산지의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가 8월 7일부터 도입됨

연방정부는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을 승인하였고, 수입금지 대상의 원산지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이며, 1년간 러시아 반입이 금지됨

< 1년간 러시아연방 반입이 금지된 미국, EU, 캐나다, 호주, 노르웨이 원산지의 농산물, 원료, 식품 목록 >

| 관세동맹 HS코드                                                                                    | 품명*)***)                                                 |
|----------------------------------------------------------------------------------------------|----------------------------------------------------------|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                                            |
| 0202                                                                                         | 쇠고기(냉동)                                                  |
| 0203                                                                                         | 돼지고기(신선, 냉장 또는 냉동)                                       |
| 0207                                                                                         |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
| 0210 중에서**                                                                                   | 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육                                     |
| 0301, 0302, 0303, 0304, 0305, 0306, 0307, 0308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생무척추동물                                 |
|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 우유와 유제품                                                  |
| 0701, 0702 00 000, 0703, 0704, 0705, 0706, 0707 00,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0714 | 채소, 식용의 뿌리와 괴경                                           |
| 0801, 0802, 0803, 0804, 0805, 0806, 0807, 0808, 0809, 0810, 0811, 0813                       | 과실과 견과류                                                  |
| 1601 00                                                                                      |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육, 설육 또는 피로 조제한 것에 한함)과 이들 물품을 기제로 한 조제식품 |
| 1901 90 110 0, 1901 90 910 0                                                                 | 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치즈와 커티지치즈를 포함한 조제식품                         |
| 2106 90 920 0, 2106 90 980 4, 2106 90 980 5, 2106 90 980 9                                   | 조제식품(식물성지방을 기제로 한 우유함유제품)                                |

\* 본 목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동맹 HS코드에 따라야 하며 품명은 사용편의를 위해 표시된 것임

\*\* 본 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관세동맹 HS코드뿐만 아니라 품명도 따라야 함

\*\*\* 어린이식품 용도의 상품은 제외함

러시아시민들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한 상품들과 어린이식품은 이 제한조치에 해당되지 않음

러시아 연방 농업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러시아의 식품, 농업원료 수입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431억 달러로 집계됨. 이에 비해 2013년 식품, 농업원료 수출은 162억 달러임

참고로, EU는 6월 25일부터 크림공화국과 세바스토폴산 상품의 EU 영토로의 수입금지조치를 발효한 바 있고 화물운송업자들을 위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보험에 대한 금지도 도입함. 해당 조치는 크림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EU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 ▶ 수입금지제품 목록 변경, 확대

러시아는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에서의 반입이 금지된 연어와 브라운송어의 치어, 씨감자, 탈유당우유(delactosed milk), 파종용 양파, 생물학적 활성첨가제(biologically active additives)와 비타민을 수입금지목록에서 제외시킴. 러시아정부 사이트에 게재된 목록에 따르면,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총리는 8월 20일에 관련 결의서에 서명함

씨감자, 씨에서 자란 알양파, 파종용 하이브리드 단옥수수, 파종용 완두콩이 반입 금지된 채소와 뿌리에서 제외됨. 우유와 유제품의 러시아 공급이 금지되었으나 탈유당우유와 탈유당유제품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됨. 생물학적 활성첨가제, 비타민-미네랄 복합제, 향미첨가제,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 농축물의 공급이 제재에서 해제됨

이외에도, 신규 결의서에는 활어 수입금지가 별도 등록됨. 하지만 이것은 대서양연어(Salmo salar)와 브라운송어(Salmo trutta)의 치어 반입과는 연관되지 않음

"채택된 결정은 '러시아연방의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특별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2014년 8월 6일자 대통령령 №560에 의해 규정되어있는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 러시아 생산자들의 이해와 특수주민그룹의 이해를 손해 없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밝혀지고 있음

## ▶ 수입금지대상국 대체할 다른 국가들, 러시아로 식품 공급 원해

푸틴 대통령이 일 년간 일부 국가들의 식품을 러시아시장으로 공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제재를 도입한 이후에 수입금지대상국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희망함. 이와 같이, 수입 금지된 제품을 대체할 제품을 하루빨리 모색하여 상품 부족현상과 가격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러시아 정부 측은 관측하고 있음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과실류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있음. 이들 국가 이외에도 터키, 이란, 세르비아도 가담함

또한,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페루와 같은 남미국가들도 러시아로 수출 공급 규모를 증가시키고자 추진 중임

어류의 경우, 러시아로 수입되는 전체 어류의 45% 가량이 이번에 수입 금지조치가 내려진 국가에서 공급되어 왔으나, 러시아 당국은 일부를 자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금지당한 노르웨이산 어류도 자국산으로 대체). 하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러시아에 공급해왔던 값비싼 치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외에, 홍합과 굴, 감자는 벨라루시가 공급할 가능성도 있음

## ▶ 8월 7일 이후 30개 이상의 해외공급업체들, 러시아 식품반입 권리 수령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은 EU,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산 식품 공급금지 이후에 식품수입금지조치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들의 업체 30개 이상에게 제품 반입허가서를 발행해 줌. 이전에 이 업체들은 전 제품 모두다 러시아에 수출한 적이 없었음

러시아로 제품 수출 권리를 받게 된 업체들은 페루 13개, 칠레 12개, 브라질 6개, 아르메니아 1개 업체임. 이외에도, 5개 업체들은 러시아로 반입 허가된 제품 목록을 확대하게 됨

동식물검역국 국장은 에콰도르, 브라질,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터키, 페루와 일련의 기타 국가들의 대표들과 협상을 가짐. 신규 업체 개발과 관련된 문제들은 러시아 비즈니스맨 혹은 타국가의 대표들이 문의서를 제출하면 민첩하게 살펴보고 있음

## ▶ 2015년 3월 1일부터 전자형태의 수의증명서 작성규칙 승인에 관한 지령 발효

2014년 7월 17일자 '전자형태의 수의동반서류 작성절차와 수의동반서류 작성업무 규칙 승인에 관한' 러시아농업부령 №281이 2014년 7월 18일에 러시아법무부에 등록됨(등록번호 №33161)

수의증명서의 전자형식을 규정하는 해당 문서에 의해 승인된 규칙은 동물과 동물성산물의 이동을 추적하게 해줌

새로운 지령 №281은 2014년 8월 13일에 러시아신문에 공보 게재됨. 1996년 5월 23일자 러시아연방대통령령 №763에 입각하여, 새로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게 됨

따라서 2006년 11월 16일자 '수의동반서류 발행업무 규칙 승인에 관한' 러시아농업부령 №422는 2015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됨

---

## ▶ 러시아정부, 새로운 냉동어류 수출관세율 승인

러시아정부결의에 입각하여, 9월 1일부터 냉동어류 수출관세율이 인하됨. 이와 같이 러시아는 WTO 가입으로 지켜야하는 의무를 실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4년 7월 25일자 '러시아 연방에서 관세동맹협정회원국 경계 밖으로 반출되는 상품의 수출관세율 변경에 관한' 러시아연방정부 결의 №705가 채택됨

HS코드 0303 냉동어류(0304호의 어류피레트와 기타 어육 제외)에 대한 관세율이 3.75%에서 2.5%까지 인하되게 됨

또한 갑각류에 대한 관세율도 7.5%에서 5%까지 인하될 계획임

## 2. 수산물 수출입동향 및 전망

### □ '14년 상반기 러시아의 어류제품 수입은 물량기준 440.4천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1% 증가

-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입구조에서 냉동어류 점유율은 51.3%, 신선 혹은 냉장 어류 12.8%,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11.8%, 어류 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 12.7%, 갑각류와 연체동물 9.7% 차지
- '14년 상반기 어류제품 수입이 증가한 것은 다음의 상품 카테고리에 연유함: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수입량 52.0천 톤(전년동기대비 15.8% 증가), 조제품과 저장처리제품 55.9천 톤(13.6% 증가), 연체동물 15.8천 톤(13.7% 증가)
- 수입 감소도 관찰됨: 냉동어류 225.8천 톤(0.5% 감소), 신선 혹은 냉장어류 56.6천 톤(13.6% 감소), 갑각류 27.0천 톤(12.3% 감소)

#### < 품목 수입통계 >

(단위: 천톤, %)

| 품목      | 2014년 상반기 누계 |           | 2014년 6월 당월 |           |           | 참조              |             |
|---------|--------------|-----------|-------------|-----------|-----------|-----------------|-------------|
|         | 물량           | 전년동기대비(%) | 물량          | 전년동월대비(%) | 동년전월대비(%) | '13.1-6/'12.1-6 | '13.6/'12.6 |
| 신선·냉동어류 | 334          | 99.0      | 35.9        | 92.8      | 73.0      | 94.5            | 110.1       |

자료원: 연방통계청

### □ '14년 상반기 러시아 경계 너머로의 어류, 어류제품, 해산물 공급(수출 포함)은 물량기준 955.1천 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0.3% 감소

- 수출 통관절차 하에 공급된 어류, 어류제품, 해산물은 전년 동기대비 11.8% 감소한 751.1천 톤이며, 이와 동시에 러시아연방영토에서 통관절차를 통과하지 않은(조업구역들에서 바로 공급된) 제품은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한 204.1천 톤임. 이와 같이, 2014년 1-6월간 러시아연방 경계 너머로의 어류, 어류제품, 해산물 공급구조에서 조업구역들에서 직접적으로 공급된 제품의 비중은 전년 동기(20.1%)에 비해 21.4% 차지
- 수출구조에서 냉동어류 점유율은 86.8%,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6.6%, 갑각류와 연체동물 3.1%, 어류 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 1.1% 차지
- 상반기 러시아연방의 어류제품 수출이 감소한 것은 냉동어류 규모가 963.9천 톤에서 829.3천 톤까지 14% 감소한 것과 연관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상품 카테고리인 어류 피레트와 기타 어육 (62.8천 톤으로 3.8% 증가), 갑각류와 연체동물(29.9천 톤으로 45.1% 증가), 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 (10.9천 톤으로 0.9% 증가)의 수출 공급은 증가함
- 조업구역들에서 직접적으로 공급된 냉동어류는 전년동기(196.2천 톤)에 비해 167.1천 톤 공급됨, 어류 피레트는 전년동기(17.1천 톤)에 비해 22.8천 톤 공급됨
- 이와 같이, 수출 감소(주로 냉동어류)에도 불구하고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공급은 성장하고, 고차 가공품인 어류피레트, 어류조제품 혹은 저장처리제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
- 어업모니터링 시스템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29일 기준 러시아 수산업체가 어획한 수산물 자원 어획규모는 전년수준보다 0.8% 증가한 2,399.4천 톤으로 집계됨

### 3. 타국산(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 □ 청어

- 러시아에서 청어 소비수준은 전통적으로 매우 높으며, 소매체인점에서는 염장, 마리네이드, 훈제, 다양한 소스가 가미된 조제품 등 가공된 형태로 유통되고 있음
- 국내시장 규모는 냉동청어를 가산하면 약 430천 톤으로 평가됨. 그중 자국산의 비중은 240천 톤 이하인데, 2012-2013년 연평균 어획량이 대략 470천 톤임(그중 100천 톤은 북부어장, 370천 톤은 극동어장에서 조업). 극동어장에서 어획된 청어의 절반 이상(약 230천 톤)은 아시아, 태평양국가로 수출되며 그 나머지의 대부분은 우랄 지역까지 수송되고 러시아중앙지역까지는 그리 많은 양이 수송되지 않는 실정임
- 게다가 엄청난 규모의 수입산 청어가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으며, 주로 노르웨이산 청어로 냉동어류 형태와 피레트 형태임. 이 공급 물량은 연간 190천 톤을 넘어서고 있음. 국내시장 소비에서 45%가 해외공급으로 충족되고 있음
- 수입산 청어는 대서양 청어이며 주로 냉동과 피레트 형태임. 대서양청어는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자국산 청어와 더불어 시장에서 약 300천 톤 가량을 차지함. 냉동청어를 가산해서 고려하면 소비자 수요의 약 16%는 해외에서 구입된 고차가공품의 청어피레트로 충족되고 있음
- 이론적으로는 자국산 청어가 국내시장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것은 일어나지 않고 있음. 대서양청어의 총허용어획량(TAC)이 급감하고 태평양청어의 어획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유럽지역의 가공업체들은 대서양청어를 원료로 사용하기를 선호함. 태평양청어는 사이즈와 지방함유량에 있어서 대서양청어보다 뒤떨어지기 때문에 가공업체들은 태평양청어가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고 여기고 있음. 이외에도, 가공업체들은 해외 원료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익인데,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선불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임. 해외에서는 한달반-두달간 외상으로 원료를 공급해주고 있음
- 극동지역과 시베리아지역 주민들은 자국산 태평양청어를 소비하지만 러시아서부지역 주민들은 수입산을 선호하고 있음. 청어와 여타 수산물의 철도수송비가 비싼 것도 원인 중의 하나임. 처음에는 태평양청어가 대서양청어보다 저렴하지만 철도수송비 지출로 인해 제품가격이 급격히 인상되게 됨
- 8월 초에 발표된 수입금지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 업체들은 노르웨이산 어류를 우회해서 공급할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아이슬란드와 페로즈제도 업체를 통해 러시아시장으로 청어를 공급하려고 함. 아이슬란드에서 러시아로 청어 공급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 칠레산 연어와 청어

- 러시아농업부차관은 연어류와 청어의 러시아 공급문제와 관련하여 칠레와 페로즈제도 수산업담당자와 협상을 진행했고 공급되는 어류의 가격문제에 대해 논의함
- 칠레산 어류공급 개발문제는 러시아에 대해 제재를 취하고 지지한 국가들(미국, EU, 노르웨이, 캐나다, 호주)의 어류 반입금지조치를 도입한 후에 일부 품목을 수입대체할 필요성이 대두했기 때문임. 특히, 논의되고 있는 어종은 대서양연어와 대서양청어임
- 2013년 페로즈제도에서 러시아로 공급된 어류제품 규모는 66.3천 톤이며, 칠레에서는 62.2천 톤이 공급됨

#### □ 스코틀랜드산 고등어

- 8월 초에 채택된 러시아의 수입금지조치는 스코틀랜드의 수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매년 스코틀랜드는 26.83백만 달러에 달하는 고등어와 고등어제품을 러시아에 공급하고 있는데 이번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제품을 국내시장이나 다른 국가로의 공급을 모색하고 있음

#### □ 페루산 자이언트 문어

- 페루의 18개 업체가 러시아 동식물검역국으로부터 러시아로의 어류공급을 재개하라는 제안을 받음. 프리미엄급의 일부 품목(예를 들어, 자이언트 문어)을 러시아로 공급하는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음
- 현재 어류뿐만 아니라 채소, 과일, 견과류 등 페루산 제품 수입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음. 작년 한 해 동안 페루산 포도가 20천 톤 수입되었다면 2014년 상반기 동안 14천 톤이 이미 공급됨

#### □ 캄차트카 연어

- 캄차트카 크라이에서 연어잡이철이 거의 끝나감. 잠정치에 따르면, 지역에서 조업한 총어획량은 124천 톤으로 집계됨. 거의 전체 물량이 국내시장으로 들어갈 예정임
- 올해 연어 조업은 예년과 같은 기록을 세우지 못했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라 할 수 있음. 2004-2006년 캄차트카에서 총어획량은 95-107천 톤임

#### □ 해삼

- 연해주에서 해삼 개체군을 복원시킬 계획이며 현재 멸종위기에 놓인 이 연체동물을 2년 후에는 100 톤까지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해삼은 아시아음식문화에서 아주 유명하며 의학에 사용되고 있음. 높은 가격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건 해삼 1kg가 약 350달러로 거래되며 채취금지와 벌금에도 불구하고 밀렵이 난무함. 결국 연해주에서 해삼 개체군은 멸종위기에 놓여있고 해삼 채취가 금지됨
- 연해주에 위치한 대형공장 중의 하나인 '비오방크'는 2010년에 극동해삼 연안양식을 시작하였고 2014년에는 연간 3.45백만 루블에 이르는 보조금을 받음

#### □ 양식어

- 양식어에 대한 시장수요가 2020년경에 10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게다가 가장 인기 높은 양식대상인 잉어류 생산은 29.463백만 톤까지 성장할 것임
- 시장분석가들은 양식시장이 2020년경에 202.96백만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일부 세계 해양 지역들에서 어획량이 감소하고 건강식으로 어류와 해산물 소비가 인기를 얻음으로써 양식어 수요가 성장하고 있음
- 양식어에 대한 시장수요가 2013년에는 약 69.23백만 톤으로 집계되었으나 2020년경에는 80.4백만 톤까지 성장할 수 있음
- 가장 대량 양식되는 어종은 잉어이며, 2013년 다양한 잉어류의 생산규모는 25.138백만 톤에 달함. 2020년경에 잉어 양식규모는 오직 증가만 할 것으로 예측됨(물량기준 29.463백만 톤)
- 양식 생산규모에서 두 번째는 연체동물이며, 시장수요는 16.62백만 톤으로 집계됨

#### □ 중국산 게맛살

- 연해주 및 사할린주 지역동식물검역국이 실시한 수의관리검사 과정에서 중국에서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들어온 중국산 게맛살(24톤)에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대장균(E. coli)이 검출됨
- 실험실테스트 결과, 해당 로트는 관세동맹의 위생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 났고 수출국으로 반송 혹은 폐기처분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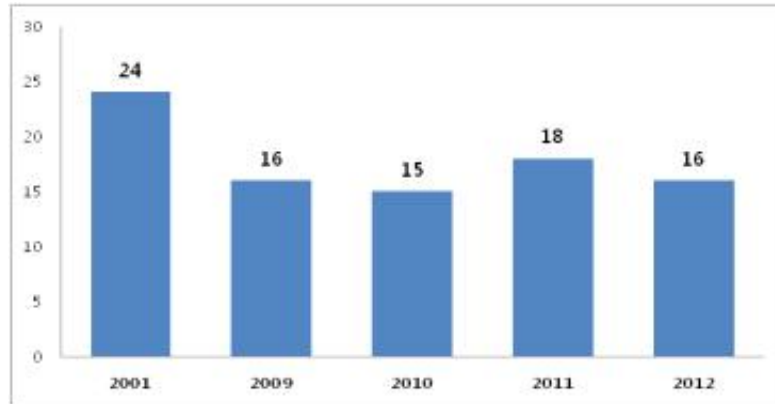
## 4. 동향 분석 [러시아 철갑상어 캐비아 시장]

#### □ 생산동향

- 밀렵이 증가하고 철갑상어 개체군의 급감으로 인해 2002년에 러시아는 카스피해와 볼가강에서 어획되는 철갑상어의 캐비아 판매금지를 선포함. 철갑상어류가 멸종위기에 놓이게 되었을 때 2007년에는 국제단체들의 압박으로 러시아는 어획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함.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100% 합법적인 철갑상어 캐비아는 양식업에서 생산된 것임
- 2012년 러시아에서 철갑상어 캐비아 생산은 약 16톤으로 집계되며 2011년보다 2톤(11%) 감소됨

< 2001-2012년 철갑상어 캐비아 생산동향 >

(단위: 톤/년)



자료원: '아그리컨설팅'(연방통계청 자료에 근거)

- 블랙캐비아 생산을 지향하는 양식업체는 러시아에서 이미 1990년대 중반에 생기기 시작했지만 시장은 아직 그리 크지 않음. 철갑상어를 양식하는 70여개 이상의 양식업체 중에서 20개 미만 정도만 캐비아를 생산함
- 철갑상어 캐비아 생산 면에서 규모가 큰 업체는 볼로그다의 유한책임회사 '디아나'('러시아캐비아 하우스'그룹에 포함), 아스트라한의 유한책임회사 '벨루가'와 유한책임회사 '라스카트', 바쉬키리의 유한책임회사 '카르마놉스키 리브호즈'가 있음

< 2012년 대형업체들의 철갑상어 캐비아 생산규모 >

| 생산자                           | 연간 생산규모(톤)    |
|-------------------------------|---------------|
| 유한책임회사 '디아나'(볼로그다 주)          | 8.5           |
| 유한책임회사 '벨루가'(아스트라한 주)         | 약 1.5 (2톤 이하) |
| 유한책임회사 '라스카트'(아스트라한 주)        | 1.2           |
| 유한책임회사 '카르마놉스키 리브호즈'(바쉬키리공화국) | 1.2           |

자료원: '아그리컨설팅'(2013년 7월 조사결과에 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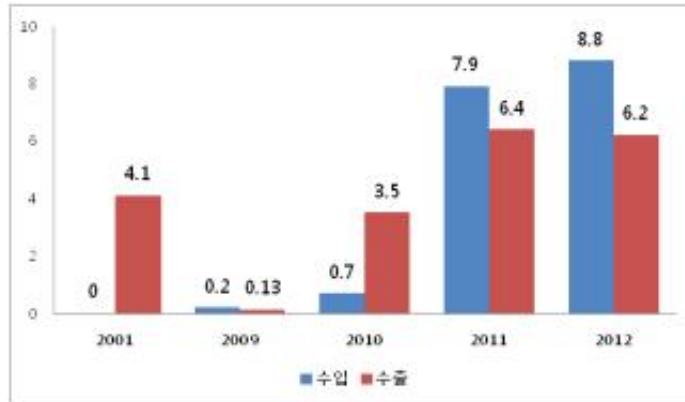
- 2013년 7월에 '아그리컨설팅'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업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캐비아 출하규모를 증가시킬 계획임. 예를 들어, 이전에 주로 철갑상어 생산에만 종사한 유한책임회사 'RK 아크바트레이드'(아스트라한 주)사는 이미 2013년에 캐비아를 약 850kg 출하할 계획이며 2014년에는 1.5톤, 2015년경에는 연간 4톤을 유통할 계획임

□ 수출입동향

- 2007년 러시아에서 도입된 철갑상어 어획금지는 러시아의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침. 2001년에만 해도 수출규모가 41톤으로 집계되었고 수입은 전혀 없었음. 2009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거의 영에 가까웠음

< 2001-2012년 철갑상어 캐비아 수출입 동향 >

(단위: 톤/년)



자료원: '아그리컨설팅'(러시아 관세청 통계 분석에 기초)

- 러시아에서 철갑상어 어획금지와 더불어 2007년에는 카스피해 인접국에서 생산된 제품 수출 모라토리움이 부분적으로 중단됨(2002년에 UN이 모라토리움 도입). 이때부터 러시아는 또다시 수출을 하기 시작했고 2009-2012년간 캐비아 연간수출규모는 47배 이상(6.1톤) 성장함. 하지만 2001년 지표에 도달하기엔 아직 멀었음
- 자국생산의 부족함은 부분적으로 수입 성장으로 보상되고 있음. 즉, 2009-2012년 4년간 연간 수입규모는 44배 이상(8.6톤) 성장함. 철갑상어 캐비아 주요수입국은 미국, 독일, 사우디아라비아임

□ 소비, 유통동향

- 연방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러시아에서는 철갑상어 캐비아가 약 16톤 생산됨. 2012년 수입량은 8.84톤이고 수출량은 6.19톤임. 따라서 러시아에서 합법적인 철갑상어 캐비아 시장의 연간 규모는 약 19톤으로 평가됨
- 시장규모는 대체상품과 비합법적인 생산제품도 포함시켜야 하는데, 철갑상어 캐비아 유사품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음. 왜냐하면 나머지 캐비아 종류는 시장에서 저가품으로 위치하기 때문임
- 2013년 6월에 실시된 '아그리컨설팅'의 조사에 따르면, 소매유통에서 연어캐비아는 평균 kg당 2-4천 루블이고 파이크 캐비아는 약 500루블/kg임. 이에 비해 철갑상어 캐비아의 가격은 10배 비싼 50-90천 루블/kg임. 인공캐비아를 만드는 것은 그리 쉽지 않으며 인공캐비아는 애피타이저 수준이고 파이크 캐비아보다 더 가격이 낮음
- 밀렵 캐비아의 경우, 러시아에서 밀렵 캐비아 생산은 합법적인 시장보다 10배 이상을 뛰어넘고 있음. 현재 판매되는 제품의 90%가 밀렵꾼으로부터 나오는 것임. 2007년 8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블랙캐비아 판매금지가 도입된 이후에 러시아에서 블랙캐비아의 97-98%는 불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음
- 암시장 규모는 약 190톤 정도인 것으로 평가됨. 그렇다면 러시아에서 철갑상어 캐비아 연간소비는 200톤 이상인 것으로 집계됨. 하지만 철갑상어 보유량의 축소로 인해 암시장의 비중은 축소되고 있음

□ 시사점

- 러시아 철갑상어 캐비아 시장의 발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음:
  - 러시아에서 블랙캐비아가 판매 금지되었다는 부정확한 언론 보도: 실체는 천연저수지에서 어획된 어류에서 생산된 캐비아만 금지되어있음
  - 밀렵: 러시아에서 철갑상어 캐비아는 연간 약 200톤 소비되며 이 중에서 합법적인 제품의 비중은 10% 이하임
  - 높은 가격: 러시아 주민의 1%만 정기적으로 캐비아를 구입할 여건이 되며 4%는 기념일에 구입하기도 함

- 생존력이 강한 어류재식재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철갑상어 어종 용도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복합사료의 가격이 비쌈
- 철갑상어 양식분야에 전문가 부족
- 철갑상어 양식업 발전에 들어가는 투자 제한
- 국가지원의 부재: 장기적인 특혜대출, 어류재식재료와 사료에 들어가는 보조금 등이 완전히 부재

<저작권자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kati.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